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

차상훈 · 정성훈 · 정운선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교실

Adult Attachment Style in Mothers of Children with Selective Mutism

Sang-Hun Cha, M.D., Sung-Hoon Jeong, M.D., Ph.D., and Un-Sun Chung, M.D.

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dult attachment style characteristics of mothers with selective mutism children and their relations to selective mutism.

Methods :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5 mothers with selective mutism children who were diagnosed by DSM-IV criteria at psychiatry outpatient department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rom March 1998 to February 2005. The controls of this study were 30 mothers with normal children who are in the seco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in Daegu. We assessed the adult attachment style characteristics of these mothers by 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 and Reciprocal Attachment Questionnaire-Korean version, self-report attachment style questionnaire.

Results : 1) On the self-report attachment style questionnaire, it revealed that mothers with selective mutism children had both of the secure and the dismissing-avoidant types predominantly and the tendency that mothers with selective mutism children more commonly had dismissing-avoidant type than controls did.

2) On the comparison of attachment quality of mothers, although only the anxiety subscale difference was significant, it revealed that mothers with selective mutism children had generally lower score pattern in all of closeness, dependence and anxiety subscale than controls did. It was consistent with the consequence of self-report attachment style questionnaire in this study.

Conclusion : This study showed that the distribution of adult attachment style of mothers with selective mutism children was different from those of controls. The dismissing-avoidant attachment style was predominant in mothers with selective mutism children. we suppose the possibility that the dismissing-avoidant attachment style of mothers with selective mutism children has relation with selective mutism.

KEY WORDS : Selective Mutism · Mother · Adult Attachment Style · Dismissing-Avoidant Attachment.

서 론

선택적 함구증(selective mutism)은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말을 잘 하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말하기를 거부하는 아동들을 일컫는 질환이다.¹⁾ 역사적으로 19세기 후반기에는 '자발성 언어상실증(aphasia voluntaria)' 이란 용어로 이러한 현상이 말을 하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결정이란

개념을 강조하였으며, 1930년대에는 '선택적 함구증(elective mutism)' 이란 용어로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아동이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근거한 것이며 이런 환아들의 적대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춘 병명이었다¹⁾. DSM-III-R(the Revised Third Edition of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서 DSM-IV(the Fourth Edition of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²⁾로 진단기준이 변경되면서 '선택적 함구증(elective mutism)' 대신에 아동이 선택적인 상황에서만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좀 더 기술적인 용어인 '선택적 함구증(selective mutism)'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경은 기질적인 억제(temperamental inhibition), 수줍음, 불안을 강조하는 새로운 원인론과 관련이 있다.¹⁾

접수원료 : 2006년 3월 30일 / 심사원료 : 2006년 8월 7일

Address for correspondence : Sung-Hoon Jeong,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50, Samdeok 2-ga, Jung-gu, Daegu 700-721, Korea

Tel : +82.53-420-5747, Fax : +82.53-426-5361

E-mail : jshun@mail.knu.ac.kr

선택적 함구증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아동의 가족신경증에 대한 반응, 즉 과보호적인 어머니나 엄격하고 정서적으로 거리가 먼 아버지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정신 역동적 갈등 등이 지적되었다.^{1,3)} 또한 초기의 외상 혹은 환경의 변화 같은 명백한 유발인자가 질병을 일으킨다고 하였다.⁴⁾ 최근에는 선택적 함구증을 소아기 불안장애나 사회불안증의 한 증상이나 아형으로 보려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5~7)} 이러한 가설은 아동이 지나치게 수줍어하고 사회적인 상황에서 위축되고 경직된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선택적 함구증 환아의 부모 중에 수줍음이나 사회공포증 증상을 가진 경우가 많았으며,⁸⁾ 치료에 fluoxetine과 같은 사회공포증 치료약물을 사용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다는 임상적 관찰에서 나왔다.^{7,9,10)} 이들 연구에서 보듯이 최근에는 선택적 함구증의 정신역동적인 원인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고 있으며, 불안장애의 한 유형으로 보고 생물학적인 방법론을 통한 현상, 원인, 치료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선택적 함구증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례 연구이고, 적은 환자군, 방법론적 결함 등을 가지고 있어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¹¹⁾

소아 발달에서 가족의 구조, 특히 양육과 자녀관계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선택적 함구증과 관련된 가족 역동의 문제들은 다양한데, 그 중 주로 언급되고 있는 모자 관계의 특징은 지나치게 과보호하고 차배(domineering)하는 어머니와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위축되어 있는 아동간의 공생적인(symbiotic) 관계이다.^{3,12)} 이러한 공생관계의 원인 요소로서 관찰되는 것은 어머니의 성격적인 특징으로 대개 감정적으로 미숙하여 아이에게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고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 무의식적인 질투감을 느끼고 피하게 된다는 견해이다.¹³⁾ 아이 역시 이러한 어머니에게 의존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충동을 가지며 이러한 공격성이 타인에게 전치되어 함구증을 나타내거나 또는 이러한 공격성의 표현을 방어하기 위해서 함구증의 증세를 나타낸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¹⁴⁾ 가족관계에서 대체로 환아에게 매우 지시적이고 과보호하려는 경향이 많으며, 부모들의 상당수는 환아 만큼이나 내향적이고 소심한 성격을 가진다는 보고도 있다.^{10,13)} 또한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들의 인격특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회피형(avoidant) 척도와 정신분열성(schizotypal) 척도가 높았다는 보고⁸⁾도 있다. 선택적 함구증의 정신 역동적 원인론에서는 소아와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 문제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최근에는 소아와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이론 및 연구들 중 애착이론이 주목받고 있다. Bowlby¹⁵⁾는 아동기 동안 양육자와 맷게 되는 관계의 질적 특징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작동모형으로 형성되고 이것은 이후 사회관계의 원형이 된다는 Bowlby의 이론¹⁵⁾에 근거하고 있다. 이 척도는 '자기

내적 작동모형(internal working model)으로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자기와 타인을 보는 관점인 내적 작동모형이나 애착표상(attachment representation)들은 일생동안 인간 관계에 대한 개인의 감정, 생각, 기대치를 지배한다고 하였다.¹⁶⁾ 또한 부모 행동이 유아에게 일정하고도 예측 가능한 반응양식들을 발달시켜 아동의 애착유형을 형성하며,¹⁶⁾ 아동의 애착유형은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애착관계에 의해 매우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¹⁷⁾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소아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아동과 어머니와의 관계 측면에서,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어머니의 애착유형과 자녀의 선택적 함구증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자 하였다.

방 법

1. 연구대상

대상자는 경북대학병원 정신과를 내원한 아동 중 1998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7년간 DSM-IV의 선택적 함구증 진단기준을 만족시킨 34명의 환아 어머니 중에서 설문에 응한 16명으로 설문지의 회수율은 47%였다. 그 중 1명은 환아의 친할머니가 설문에 응하여 선택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되었으며, 최종 15명의 선택적 함구증 환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조군은 환아들의 정신과 초진 당시 연령과 유사연령인 대구시내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의 어머니들에게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발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60부가 발송되었으며, 이중 40부가 회수되었고, 회수율은 67%였다. 이 중 자료 분석에 적합하지 않게 설문지를 작성한 10부가 제외되었으며, 최종 30명이 연구대상으로 채택되었다. 설문지는 인구학적 특성과 애착특성에 대한 설문을 포함하였다.

2. 연구도구

1) 사회 인구학적 설문조사

아동의 나이 및 성별, 어머니의 나이, 교육수준, 출생순서, 직업, 일차양육자, 경제상태 등 일반적 사회 인구학적 특징을 묻는 설문을 자체 제작하여 조사하였다.

2) 자기보고형 애착관계 유형 척도(Self-report Attachment Style)

본 척도는 Bartholomew와 Horowitz가 개발하였고,¹⁸⁾ 애착유형을 평가하는 범주적인 척도로서 아동기 동안 양육자와 맷게 되는 관계의 질적 특징이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한 작동모형으로 형성되고 이것은 이후 사회관계의 원형이 된다는 Bowlby의 이론¹⁵⁾에 근거하고 있다. 이 척도는 '자기

		Model of self	
		Positive	Negative
Model of Other	Positive	Secure	Preoccupied
	Negative	Dismissive-avoidant	Fearful-avoidant

Fig. 1. Bartholomew's four-category model of adult attachment
Note. From "Attachment Style Among Young Adults :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by K. Bartholomew and L. Horowitz, 1991,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p. 227, Fig. 1. Copyright 1991 by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dapted by permission.

상(self-image)’을 긍정적(positive) 또는 부정적인(negative) 관점으로, ‘타인상(other-image)’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분류하여 성인애착을 안정형(secure), 몰두형(preoccupied), 무시-회피형(dismissing-avoidant), 두려움-회피형(fearful-avoidant)의 4가지 유형으로 개념화하였다.¹⁸⁾ 대상자는 서로 다른 관계형성의 특징을 기술하는 4가지 항목 중 자신에게 가장 잘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이 척도는 김은정, 권정혜¹⁹⁾에 의해 우리나라에 번안되어 있다(Fig. 1).

3) 개정된 성인애착관계형성 척도(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 RAAS)

본 척도는 Hazan과 Shaver²⁰⁾가 성인 애정 관계와 초기 부모-아동 관계 사이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만든 척도를 Collins와 Read²¹⁾가 수정하여 만든 성인애착관계형성 척도로서 김은정과 권정혜¹⁹⁾가 번안하였다. 본 척도는 자가 보고형 척도로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연속 평가척도이며, 요인분석에 의해 나누어진 의존가능성(dependence), 친밀성(closeness), 불안(anxiety) 세 개의 하위척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의존가능성 척도는 개인이 타인을 신뢰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가용한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불안척도는 버림받을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그리고 친밀성 척도는 개인이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는 가를 평가한다. 안정된 애착관계형성은 친밀성과 의존가능성 척도에서 높고 불안척도에서 낮은 정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²¹⁾

4) 한국판 상호애착 척도(Reciprocal Attachment Questionnaire-Korean version, RAQ-K)

West 등²²⁾이 개발한 RAQ는 성인애착 정도와 애착유형을 동시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총 43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애착의 정도를 평가하는 ‘애착차원 척도(attachment dimensional scale)’와 ‘애착유형척도(attachment patterns scale)’로 나뉘어 질수 있다. ‘애착차원척도’는 5개의 하위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하위척도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적으로 애착의 기본 개념을 평가하는 영역과 성인애착을 평가하는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애착 기본개념 영역에 ‘근접성 추구(proximity seeking)’, ‘분리저항(separation protest)’ 하위척도가 있고, 성인애착 영역에 ‘상실에 대한 두려움(feared loss)’, ‘가용성(availability)’, ‘이용(use)’ 하위척도가 있다. ‘애착유형 척도’는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하위척도 별로 7개의 문항이 있다. 두 가지 애착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불안 애착유형(anxious attachment pattern)’에 ‘강박적 보호추구(compulsive care-seeking)’와 ‘강박적 보호제공(compulsive care-giving)’ 하위척도가 있고, ‘회피 애착유형(avoidant attachment pattern)’에 ‘분노철수(angry withdrawal)’와 ‘강박적 자기 의존(compulsive self-reliance)’ 하위척도가 있다. 이 척도는 김휘중 등²³⁾에 의해 번안되어 있다.

3. 자료 분석

통계자료의 분석은 SPSS 12.0 Window version을 사용하였다. 환자군과 대조군 어머니 사이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자기보고형 애착관계 유형 척도(self-report attachment style)의 비교분석에는 교차분석(χ^2 test)을 사용하였고, RAAS, RAQ-K 척도의 비교분석에는 독립표본 검정(t-test)을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 미만의 p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결 과

1. 사회 인구학적 특성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군은 총 15명, 대조군은 총 30명 이었다. 선택적 함구증 환아의 성비는 1.5 : 1(여아/남아)이었으며, 연구를 진행한 현시점에서 환아들의 평균나이는 10.5세였다. 대조군 아동의 성비는 0.9 : 1(여아/남아)이었으며, 평균나이는 9세였다. 두 군 간에 성비와 나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환아 어머니들과 대조군 어머니들 사이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비교에서 나이, 교육받은 정도, 어머니의 출생순서, 어머니의 직업, 아동을 직접적으로 양육한 사람, 사회경제적 수준(socioeconomic status : SES)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어머니의 자기보고형 애착관계유형 척도(Self-report Attachment Style) 비교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군과 대조군 어머니의 애착관계 유형 비교에서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에서는 안정형과 무시-회피형이 각각 4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두

Table 1. Comparison of the sociodemographic and family characteristics between a sample of mothers with selective mutism(SM) children and a sample of control mothers

Child and mother characteristics	SM group (n=15)		Control group (n=30)		χ^2 or df t test	p
	n	%	n	%		
Gender of child					0.71	.39
Female	9	60	14	46.7		
Male	6	40	16	53.3		
Age of child (years)					2.25	.41
Mean (SD)	10.5*	(2.5†)	9*	(0.0†)		
Age of mother						
Mean (SD)	37.8*	(3.6†)	36.8*	(3.3†)	0.9	.43
Education of mother					4.29	.11
Upper status	5	33.3	10	33.3		
Middle status	8	53.3	20	66.7		
Lower status	2	13.3	0	0		
Birth-order of mother					2.87	.24
First	1	6.7	3	11.1		
Middle	14	93.3	20	74.1		
Last-born	0		4	14.8		
Occupation of mother					2.11	.35
Regular job	6	40.0	7	23.3		
Timejob	0	0	2	6.7		
Housekeeper	9	60.0	21	70		
Child care person					5.23	.26
Mother	8	53.3	12	42.9		
Paternal grandmother	2	13.3	8	28.6		
Maternal grandmother	2	13.3	5	17.9		
Day nursery	1	6.7	3	10.7		
Others	2	13.3	0	0		
Socioeconomic status					4.46	.22
Upper status	2	13.3	0	0		
Middle high status	2	13.3	6	23.1		
Middle low status	9	60	14	53.8		
Lower status	2	13.3	6	23.1		

*: Value expressed as a mean, †: Value expressed as a standard deviation

SM : selective mutism

려움-회피형(13.3%), 몰두형(6.7%)의 순이었다. 대조군 어머니에서는 안정형이 역시 46.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몰두형(30.0%), 무시-회피형(16.7%), 두려움-회피형(6.7%)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군 모두에서 안정형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유형의 순서에서는 두 군 사이에 차이가 있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chi^2=5.28$, p=.15).

자기상을 기준으로 두 군을 비교했을 때, 선택적 함구증

Table 2. Comparison of the self-report attachment style characteristics between a sample of mothers with selective mutism(SM) children and a sample of control mothers

	SM group (n=15)		Control group (n=30)		χ^2	df	p
	n	%	n	%			
Self-report attachment style							
- 4 Style Classification					5.28	3	.15
Secure	6	40.0	14	46.6			
Preoccupied	1	6.7	9	30.0			
Dismissing/avoidant	6	40.0	5	16.7			
Feared/avoidant	2	13.3	2	6.7			
Self image dimension							
Positive	12	80.0	19	63.3			
Negative	3	20.0	11	36.7			
Other image dimension							
Positive	7	46.7	23	76.7			
Negative	8	53.3	7	23.3			
Total	15	100.0	30	100.0			

*: p<.05

SM : selective mutism

Table 3. Comparison of the mean raw scores (and standard deviations) on 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RAAS) between a sample of mothers with selective mutism(SM) children and a sample of control mothers

RAAS	SM group (n=15)		Control group (n=30)		F	t	df	p
	Mean	SD	Mean	SD				
Close	17.20	3.10	18.17	2.21	0.92	-1.21	43	.24
Depend	16.80	3.36	17.47	3.12	0.40	-0.66	43	.51
Anxiety	11.73	2.52	13.60	2.66	0.02	-2.26	43	.03*

*: p<.05

SM : selective mutism, RAAS : 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

환아 어머니군에서 긍정적상을 가지는 군(안정형, 무시-회피형)과 부정적상을 가지는 군(몰두형, 두려움-회피형)의 비가 80% : 20%였고 대조군에서는 63.3% : 36.7%였으며,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군에서 긍정적상을 가지는 유형을 보인 빈도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타인상을 기준으로 두 군을 비교했을 때,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군에서 긍정적상을 가지는 군(안정형, 몰두형)과 부정적상을 가지는 군(무시-회피형, 두려움-회피형)의 비가 46.7% : 53.3%였고 대조군에서는 76.7% : 23.3%였으며,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군에서 부정적상을 가지는 유형을 보인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chi^2=4.05$, p=.04) (Table 2).

3. 어머니의 성인애착관계형성 척도(RAAS) 비교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군과 대조군 어머니의 성인애착관계형성 척도 비교에서 친밀성 척도, 의존성 척도, 불안 척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의 애착특성

Table 4. Comparison of the mean raw scores (and standard deviations) on reciprocal attachment questionnaire-korean version (RAQ-K) between a sample of mothers with selective mutism (SM) children and a sample of control mothers

	SM group (n=15)	Control group (n=30)	Mean	SD	Mean	SD	F	t	df	p
Dimension										
Proximity seeking	7.73	2.55	8.57	1.77	2.75	-1.28	43	.21		
Separation protest	7.00	1.96	7.47	1.93	0.00	-0.76	43	.45		
Feared loss	7.13	1.77	6.67	1.77	0.01	0.84	43	.41		
Availability	9.13	2.77	9.07	2.20	0.45	0.09	43	.93		
Use	9.00	2.33	9.67	2.11	0.19	-0.97	43	.34		
Patterns										
Compulsive care-seeking	18.53	3.58	19.47	2.67	1.26	-0.98	43	.33		
Compulsive care-giving	20.07	3.43	21.53	3.73	0.03	-1.28	43	.21		
Angry withdrawal	18.20	4.06	18.47	4.02	0.00	-0.21	43	.84		
Compulsive self-reliance	21.33	3.77	23.67	3.46	0.96	-2.07	43	.04*		

* : p<.05

SM : selective mutism, RAQ-K : reciprocal attachment questionnaire-korean version

도 모두에서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군에서 대조군보다 낮은 점수가 나왔으나, 불안척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2.26$, $p=.03$) (Table 3).

4. 어머니의 상호애착척도(RAQ-K) 비교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군과 대조군 사이의 상호애착척도 비교에서 애착차원 척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애착유형 척도 비교에서는 '강박적 자기의존' 하위척도에서만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군이 대조군 어머니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t=-2.07$, $p=.04$) (Table 4).

고 찰

어머니의 자기보고형 성인애착유형 척도(self-reported attachment style)는 두 군 사이에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무시-회피형이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군(40%)에서 대조군(16.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전의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장휘숙²⁴⁾이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안정형(44.88%), 몰두형(29.27%), 무시형(15.61%), 두려움형(10.24%) 순으로 유형이 보고 되었고, 노경선 등²⁵⁾이 한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안정형(47.6%), 몰두형(32.2%), 무시형(14.6%), 두려움형(5.6%) 순으로 보고 된 바 있다. 이 두

가지 연구 모두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지만, 본 연구의 대조군의 분포(안정형 : 46.6%, 몰입형 : 30.0%, 무시형 : 16.7%, 두려움형 : 6.7%)와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 비록, 정상성인에 대한 성인애착유형의 분포가 현재로선 검증되어 있지 않고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수가 적어 통계학적 유의성을 없었으나, 대조군에 비해 무시-회피형(40%)과 두려움-회피형(13%)이 증가된 점은 어머니의 회피유형과 자녀의 선택적 함구증과의 관련성을 시사해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4가지 애착 유형 중 무시-회피형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상을 가지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상을 가지고,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관점과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관점이 결합되어 다른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하고 애착관계에 관심이 없고 독립심을 강조한다.¹⁸⁾ 다른 연구에서는 무시-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애착대상에 대한 애착행동에 더 적게 관여하며, 시선접촉, 키스, 감정을 자유롭게 교류하는 것 등과 같은 정동적 유대를 촉진하는 행동을 더 적게 하여 애착과 관련된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고하였다.²⁶⁾ 또한 무시-회피형은 부정적인 애착경험들의 영향을 최소화, 회피, 가치절하, 부정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군을 의미한다. 이런 전략으로 인해 무시-회피형군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고통, 심리적인 증상들, 문제들을 적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어, 자기보고형 성인애착척도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²⁷⁾ 불안정한 애착군 중에서도 몰두형보다 무시-회피형을 가진 어머니들에서 주어진 과제들을 변경할 때 더 급격하게 옮겼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갑자기 버려두는 양상을 보였으며, 자녀들에서 문제 행동과 고통이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했다고 보고 되었다.^{28,29)}

어머니와 유아의 애착유형은 유의하게 상호 일치하며 애착이 세대간에 걸쳐 전달된다고 알려져 있다.³⁰⁾ Bowlby는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애정 및 수용의 정도가 성인이 되어 부모로서 유아를 돌볼 때 감정이입과 인내심의 정도에 영향을 주어 이러한 질적 특성이 세대간에 걸쳐 전달된다고 주장하였으며,¹⁵⁾ 이러한 주장은 최근 여러 연구들에서 실험적으로 입증되어 오고 있다.^{31,32)} 또한 정신과적 임상 증상을 가진 아동의 어머니들에서 불안정 애착유형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는 연구들이 최근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³³⁾ 따라서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들에서 불안정한 애착 중 무시-회피적 유형의 증가가 선택적 함구증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자기보고형 성인애착유형척도(self-report attachment style)의 4가지 애착유형은 자기상과 타인상 차원으로 양분

화 되는데, ‘자기상’ 차원에서 비교해보면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군에서 대조군보다 자기에 대한 긍정적 상을 보이는 유형(안정형과 무시-회피형)의 빈도가 높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타인상’ 차원에서 비교해보면,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군에서 대조군보다 타인에 대한 부정적 상을 보이는 유형(무시-회피형과 두려움-회피형)의 빈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선택적 함구증은 ‘자기상’ 보다는 ‘타인상’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4가지 애착유형들 중 회피형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전체 빈도만을 본다면 불안정한 애착유형인 몰두형, 무시-회피형, 두려움-회피형 중 몰두형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었다.

성인애정관계의 애착의 질을 평가하는 성인애착관계형성 척도(RAAS) 비교에서는 의존성, 친밀성, 불안척도 모든 항목에서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군이 대조군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지만, 불안척도 비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2.26, p=.03$).

불안척도는 형성된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 버림받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며, 유아에서는 심한 분리불안에 해당되며 안정형 및 회피형에서 불안/양가적 애착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²¹⁾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의존성, 친밀성척도가 대조군에 비해 낮다는 것은 불안정한 애착유형이 많은 가능성은 시사하며, 그리고 유의하게 불안척도가 낮아 불안정한 애착유형 중 회피형 애착유형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점은 Bartholomew와 Horowitz의 자기보고형 애착유형 척도 결과와 일치하는 소견으로 판단된다.

Collins와 Read의 성인애착관계형성 척도²¹⁾와 4가지 애착유형을 개념화한 Bartholomew와 Horowitz의 애착척도¹⁸⁾ 간의 상호비교연구³⁴⁾에서는 ‘자기상’ 차원이 불안척도에 대한 강력한 예측인자이고, ‘타인상’ 차원이 친밀성 척도에 대한 강력한 예측인자라고 하였다. 즉 ‘자기상’이 긍정적일수록 불안척도의 점수는 낮고, ‘타인상’이 긍정적일수록 친밀성척도 점수가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 ‘자기상’ 차원이 긍정적인 유형을 보인 빈도에서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군(80%)이 대조군(63.3%)보다 높았고, ‘타인상’ 차원이 긍정적인 유형을 보인 빈도에서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군(46.7%)이 대조군(76.7%)보다 낮았으므로,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군에서 불안척도 점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왔고 친밀성척도 점수가 유의하진 않았지만 낮게 나온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 애착척도간의 상호비교연구 결과³⁴⁾와 일치되었다.

어머니간의 상호애착척도 비교(RAQ-K) 결과, 애착차원 척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애착유형 척도 비교에서는 ‘강박적 자기 의존’ 하위 척도에서만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군이 대조군 어머니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t=-2.07, p=.04$). RAQ-K 척도는 ‘애착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하며, 하나는 ‘불안 애착유형’으로 ‘강박적 보호추구’, ‘강박적 보호제공’의 하위척도를 가지고, 다른 하나는 ‘회피 애착유형’으로 ‘분노철수’, ‘강박적 자기의존’의 하위척도를 가진다.²³⁾ 본 연구결과, 두 군에서 ‘불안 애착유형’ 정도를 평가하는 하위척도 간에는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군에서 대조군보다 두 척도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인애착척도 중 ‘회피 애착유형’을 평가하기 위한 하위 척도 중 ‘강박적 자기 의존’ 척도에서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군에서 대조군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Bartholomew의 애착유형 분류 결과와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소견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군에서 무시-회피형의 비율이 대조군보다 높았고,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상을 가지는 유형을 보인 빈도가 대조군보다 높았으므로, 이와 일관된 결과를 보이려면, RAQ-K 척도에서는 ‘분노철수’와 ‘강박적 자기 의존’ 척도 모두에서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군에서 점수가 보다 높게 측정되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두 가지 척도간의 상관성 비교연구가 없어 본 연구결과를 정확히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연구 대상의 수가 적은 본 연구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Bartholomew와 Horowitz의 애착유형¹⁸⁾은 단답형으로 되어 있어 소수의 연구대상일지라도 유형간 그 빈도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상호애착 척도의 경우 각 애착유형의 특성을 하위척도의 평균점수를 계산하여 그 경향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구대상이 적은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이 섞여 있는 하나의 군이 다른 군보다 척도별 점수비교에서 일관된 차이를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상호애착척도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다른 애착척도들과 비교연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애착을 평가하는 척도들 간의 상관성 비교연구가 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군에 속하는 표본수가 적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선택적 함구증의 평균 유병률이 0.06%~0.69%^{35,36)}의 범위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고, 증상 자체가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병원에 잘 찾아오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향후 다른 병원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환아군 모집에 유의를 해야 하겠다. 둘째,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군이나 대조군 모두 설문 응답군과 비응답군간에 특성차이가 존재할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군에 대한 자료만 분석하였으므로 이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대조군에 대한 자세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

대조군의 아동들은 정신과적 병력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지만, 그 어머니들의 정신과적 과거력이나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특징들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로 인해 통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에 대한 이전의 연구가 적어 비교할 대상이 없었다. 특히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의 애착 관계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없었고, 성인애착관계에 대한 연구들도 주로 대학생 등의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해석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선택적 함구증과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의 애착특성과의 관련성에 대해 최초로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보다 많은 수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 론

3가지 성인애착척도를 이용하여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들의 성인애착유형을 분석하여 선택적 함구증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군에서 애착유형 비교 결과,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군에서 4가지 애착유형 중 안정형과 무시-회피형이 높은 비도를 보였으며, 대조군과 비교할 때 무시-회피형이 높은 비도를 보이는 경향을 보였다.

애착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에서는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군에서 불안차원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의존성, 친밀성 척도에서도 모두 대조군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무시-회피형이 높은 비도를 보인 애착유형결과에 부합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택적 함구증 환아 어머니의 무시-회피적인 애착 유형적 특성이 선택적 함구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선택적 함구증을 이해하는 데 있어, 아동과 어머니간의 애착관계적 특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다각적인 조기 치료전략 수립이 필요하겠다.

중심 단어 : 선택적 함구증 · 어머니 · 성인애착 · 무시-회피형 애착.

References

- 1) Henrietta L. Selective Mutism. In: Sadock BJ, Sadock VA, editors.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7th ed.;2000. p.2777-2780.
- 2)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1994.
- 3) Hayden TL. Classification of elective mutism.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80;19:118-133.
- 4) Wright HH, Miller MD, Cook MA, Littmann JR. Early identification and intervention with children who refuse to speak.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85;24:739-746.
- 5) Black B, Uhde TW. Psychiatric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selective mutism: a pilot study.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5;34:847-856.
- 6) Dummit ES, Klein RG, Tancer NK, Asche B, Martin J, Fairbanks JA. Systematic assessment of 50 children with selective mutism.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7;36:653-660.
- 7) 이영식, 남범우, 김종범. 선택적 함구증을 보이는 15세 남아의 Fluoxetine 치료 경험 1례. 신경정신의학 1996;35(2): 461-468.
- 8) Kristensen H, Torgersen S. MCMI-II personality traits and symptom traits in parents of children with selective mutism: a case-control study. J Abnorm Psychol 2001;110:648-652.
- 9) Dummit ES, Klein RG, Tancer NK, Asche B, Martin J. Fluoxetine treatment of children with selective mutism: an open trial.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6;35:615-621.
- 10) 송동호, 박민숙, 남수용, 육기환, 노경선, 이홍식. 선택적 함구증 환자에서의 Fluoxetine 치험.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997;8:266-272.
- 11) Steinhause HC, Juzi C. Elective mutism: an analysis of 100 case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6;35:606-614.
- 12) Wilkins R. A comparison of elective mutism and emotional disorders in children. Br J Psychiatry 1985;146:198-203.
- 13) 정선주, 홍강의. 선택적 함구증 아동의 임상특성 및 치료 경과.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995;6:74-89.
- 14) Wergeland H. Elective mutism. Acta Psychiatr scand 1979;59: 218-228.
- 15) Bowlby J.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1982.
- 16) Main M, Kaplan N, Cassidy J.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 Soc Res Child Dev 1985;50:66-107.
- 17) 전효정. 어머니-유아 애착의 세대간 전이의 메커니즘: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애착유형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003;8:159-174.
- 18) Bartholomew, K., Horowitz, LM.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 Pers Soc Psychol. 1991;61:226-244.
- 19) 김은정, 권정혜.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 성인기 애착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98; 17:139-153.
- 20) Hazan C, Shaver P.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 Pers Soc Psychol 1987;52:511-524.
- 21) Collins NL, Read SJ.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s quality in dating couples. J Pers Soc Psychol

- 1990;58:644-663.
- 22) West M, Sheldon AER, Reiffer L. An approach to the delineation of adult attachment: Scale development and reliability. *J Nerv Ment Dis* 1987;175:738-741.
 - 23) 김휘중, 원승희, 임효덕. 한국판 상호애착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1999;38:1376-1389.
 - 24) 장휘숙.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97;10:123-138.
 - 25) 노경선, 허묘연, 홍현주. 청소년기 애착 유형과 부모 양육 행동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003;42:116-123.
 - 26) Fraley RC, Davis KE, Shaver PR. Dismissing-avoidance and the defensive organization of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In: Simpson JA, Rholes WS, editor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 Press;1998. p.249-279.
 - 27) Dozier M, Lee SW. Discrepancies between self- and other-report of psychiatric symptomatology: Effects of dismissing attachment strategies. *Dev Psychopathol* 1995;7:217-226.
 - 28) Crowell JA, Feldman SS. Mothers'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mother and child behavior during separation and reunion. *Dev Psychol* 1991;27:597-605.
 - 29) Crowell JA, O'Connor E, Wollmers G, Sprafkin J, Rao U. Mothers' conceptualization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Relation to mother-child interaction and child behavior problems. *Dev Psychopathol* 1991;3:431-444.
 - 30) Benoit D, Parker K. Stability and transmission of attachment across three generations. *Child Dev* 1994;65:1444-1457.
 - 31) 장미자, 조복희. 애착의 세대간 전이-어머니의 내적 실행 모델과 영아의 애착 유형. *아동학회지* 1999;20:147-164.
 - 32) Mikulincer M, Orbach I. Attachment styles and repressive defensiveness: The accessibility and architecture of affective memories. *J Pers Soc Psychol* 1995;68:917-925.
 - 33) Greenberg MT, Speltz ML, Deklyen M, Endriga MC. Attachment security in preschoolers with and without externalizing problems: a replication. *Dev Psychopathol* 1991;3:413-430.
 - 34) Griffin D, Bartholomew K. Models of the self and other: Fundamental Dimensions underlying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 Pers Soc Psychol* 1994;67:430-445.
 - 35) Fundudis T, Kolvin I, Garside R. *Speech Retarded and Deaf Children, Their Psychological Development*. London: Academic Press;1979.
 - 36) Browne E, Lloyd H. A controlled study of children not speaking at school. *Assoc Workers Maladjust Child* 1975;3:49-63.